

‘표준규격품’ 출하 버섯·과실·채소류·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

지난해 표준규격 고시 개정 10월 14일부터 시행... ‘가열조리해 드세요’ 등 표기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지난해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개정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의 포장재 겉면에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안전문구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14일부터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판매하는 자는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소비를 위해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껍질을 벗겨 먹는 품목(과인애플, 감귤, 수박 등), 씻어서 먹는 품목(고구마, 복숭아, 당근 등)은 의무 표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농관원은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대상으로 표준규격품(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포장재 겉면에 안전문구가 적절하게 표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따라서 의무표시 대상 표준규격 품목을 출하·판매하는 자는 경우에 포장재 겉면에 ▲버섯류: ‘그대로

섭취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열 조리하여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 ‘세척 후 드세요.’ ▲신선편이 농산물: ‘세척 후 드세요.’ 또는 ‘가열 조리하여 드세요.’ 등의 안전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농관원은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협력해 버섯류 등의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표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 단체와 품목별 주산 단지 등을 대상으

로 홍보물 배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안전문구 표시방법 등을 홍보하고, 공동선별조직과 포장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 시 안전문구 표시방법에 대해 현장 홍보를 추진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신선편이 농산물 표준규격품에 대한 안전문구 의무 표시 제도가 현장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및 포장재 제작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산자 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린초, 인지기능장애 완화에 큰 효과 있다

추출물 투여 실험동물, 대피장소 도달 시간 빨라져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자생 식물인 ‘기린초’ 잎이 치매 증상의 하나인 인지기능장애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전임상실험(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린초(*Sedum kamschatcicum* Fisch. & Mey.)는 바위 위나 냇가에서 자라는 물나물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이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 치매 환자 수가 84만 2710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의 주요 증상인 인지기능장애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식물자원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진청은 신경전달물질 관련 인지기능 개선 가능성 평가 실험을 통해 국내에서 자생하는 식물자원 추출물 180여 개 중 기린초 잎을 선별하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시험관에서의 효소 활성 실험에서는 기린초 잎 추출물이 치매 치료제인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AChE) 저해제’와 비슷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뇌 속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는 정도를 나타내는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저해율은 기린초 잎 추출물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지기능장애를 유발한 동물(흰쥐)을 대상으로 기린초 잎 추출물을 각각 저농도(100mg/kg)와 고농도(300mg/kg)로 14일간 투여한 뒤 모리스수중미로시험을 실시한 결과, 기린초 잎 추출물 투여 집단은 기린초 잎을 처리하지 않고 인지기능장애만을 유발한 대조 집단보다 각각 24.0%, 25.9% 빨리 대피 장소에 도착했다.

이울러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동물 뇌 해마에서 면역회색염색법을 이용해 인지기능 관련 단백질(p-CREB, BDNF)을 분석한 결과, 기린초 잎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은 대조 집단보다 각 항체에 반응한 세포 수가 증가해 기린초 잎 추출물 투여로 실험동물의 인지기능장애를 완화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특히 등록을 마쳤으며 국내 전문 학습자에 실렸던 기린초 잎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의 식품원료목록에서 확인되는 재료로, 앞으로 농가 생산 기반만 갖춰진다면 식·의약 소재로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김금수 과장은 “현재 기린초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작용 원리와 원료 표준화 등의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기린초의 건강 기능성이 확인됐으므로 인건 증가를 위한 생산체계도 개발해 농산품과 기능성 소재 산업이 연계·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창업진흥원 주관으로 실시한 제2회 창업사회적가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원 창업보육팀 박희열 과장이 창업지원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함께 가는 길, 성장하는 길’

바이오진흥원 창업보육팀 박희열 과장
창업사회적가치 우수사례 경진 대상 수상
코로나19 위기극복 임대로 감면 등 발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창업진흥원 주관으로 실시한 ‘제2회 창업사회적가치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원 창업보육팀 박희열 과장이 창업지원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회는 국내 창업지원기관 및 창업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사례 공유와 실현을 위해 개최하는 대회다. 올해로 2회째인 이 대회에는 전국

총 179명이 참가해 1차 전문가 평가를 통해 18개의 우수사례를 선별하고 2차 대국민온라인투표를 실시 후 순위를 정한 가운데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도내 창업기업 지원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대상을 수상한 우수사례는 혁신성 및 차별성이 돋보였으며 ‘함께 가는 길, 성장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사회적 약자 우대할인 실시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임대료 감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 편의 시설 구축 ▲진흥원내 유류공간 활용 확대를 사회 적 상생 가치 실현으로 요약한다.

대상 수상자인 박희열 과장은 “도내 창업기업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이오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며 “우리 삶의 가치가 함께 나눌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사회적가치 창출 실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성과를 평가하는 전라북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017년부터 2020년 까지 4년 연속 가등급을 달성한 우수기관이다. 김동수 원장은 “우리 도내 농식품의 가치인 생명과 상생을 사회적 가치로 재창조시키는 기관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4050 시니어 세대 성공 창업 지원

경진원, 27일까지 교육생 모집

전북도경제진흥진흥원(원장 이현웅, 이하 경진원)은 오는 27일까지 2021년 2기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 창업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는 도내 만40세 이상 시니어 세대의 성공적인 사업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창업을 통해 ‘인생이모작’을 준비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창업에 대한 기본과정(20시간)과 심화과정(30시간)으로 단계별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맞서 비대면 화상강의와 소규모 분반 교육으로 방역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사업계획 작성, 온라인마케팅 교육 및 전문가 1대1 멘토링 등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실천교육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경진원 이현웅 원장은 “시니어 세대가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과 세상에서 두루 겪은 소중한 경험들이 경진원의 다양한 창업교육과 만나 코로나19 장기화를 극복하고 성공창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예비창업자는 경진원 교육관리시스템(http://edu.jbba.or.kr)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삼천동에 ‘JB희망의 공부방’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지난 18일 전주 삼천나눔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124호’ 오픈식을 실시했다.

지난 2002년 개소한 삼천나눔지역아동센터는 주변일대 아동들에게 학습 지도, 현장체험학습, 특기적성 강화교육, 방학 중 급식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 사용해 노후화 된 센터환경 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 최강성 사회공헌부장, 삼천나눔지역아동센터 안명숙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에서는 10년 넘게 사용해 낡고 손상된 책상과 의자, 블라인드 등을 전면 교체하여 안전하고 깔끔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고장인 에어컨과 에어컨을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콘퓨터 등을 추가로 지원해 아동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비대면 원격 전기안전 관리체계 구축 도모

전기안전공사, ‘KESCO-IPPA 기술협력 온택트 워크숍’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광역정전 지도, 현장체험학습, 특기적성 강화교육, 방학 중 급식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오랜 시간 사용해 노후화 된 센터환경 개선이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날 오픈식에는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 전북은행 이성란 부행장, 최강성 사회공헌부장, 삼천나눔지역아동센터 안명숙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에서는 10년 넘게 사용해 낡고 손상된 책상과 의자, 블라인드 등을 전면 교체하여 안전하고 깔끔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고장인 에어컨과 에어컨을 교체하기 위해 필요한 콘퓨터 등을 추가로 지원해 아동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회적 지지망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저업부터 최중단 손상 및 냉각수 열교환기 교체 시제를 포함해 모두 6건의 주제 발표가 이어지며 광역정전 예방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펼쳐졌다.

김관중 기술이사는 “전기안전관리법이 지난 4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민간발전회와의 더욱 돈독한 협력을 통해 광역정전 사고 예방에 힘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예수병원, 상호협력 다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19일 전북은행 본점에서 전주예수병원과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동반 성장 및 우수 증진을 위한 금융 서비스 지원과 거래,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의 상호 협력 등 다방면에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철승 예수병원장은 “항동은행인 전북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두 기관이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금융과 의료 발전에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한국 전북은행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은행과 예수병원이 단순 협력을 넘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ESG가치 실현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쌀 심리향미 ‘즉석밥’ 출시 기념

전북농협, 오늘부터 농협유통 전주점서 판촉행사 진행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전라북도, 육구농협(조합장 정봉구)과 함께 농협유통 전주점에서 전북 쌀 광역브랜드인 ‘심리향미 즉석밥 출시 기념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심리향미를 구입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심리향미로 만든 즉석밥을 증정하고, 5만 원 이상 이용고객에게는 심리향미 즉석밥을 매일 100개 한정으로 총 2000개를 지급한다.

현재 ‘예담채 심리향미’는 온라인 마케팅 농협몰, 우광, 위메프, 11번가,

이마트몰, 전북도 거시기장터 등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으며, 농협유통 전주점, 양재점, 창동점, 울산점, 고안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도매 매장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 도입해 판매되고 있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 쌀 광역브랜드 ‘예담채 심리향미’가 전북도민에게 널리 홍보되고 사랑받길 바란다”며 “전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판매채널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H농협생명 전북총국 생보 연도대상 도전 직원교육

NH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이숙)은 19일 농협생명 연도대상에 도전하는 농협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명보험 추진을 통한 전북 지역 농축협 비이자 수익 확대를 위해 기획됐으며, 교육진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한 교육 시청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육에 앞서 전북농협 정재호 본부장은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행사를 통해 전북 농·축협들이 생명보험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하반기 비이자 수익 증대를 달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생명보험 추진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규 고객개발을 통한 보장성 상품 추진기법과 FA를 활용한 VIP마케팅’을 주제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농협 우수 직원들의 연도대상 도전의사 고취를 통해 생명보험 추진에 동력을 얻길 바란다는 “전북 지역 농·축협 비이자 수익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국 차원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